
교단 제4대 전망과

제4대 제1회 설계 추진 활동 보고

(원기 106. 01~106. 10)

원기 106년 11월 5일



원불교 정책연구소

1 경과 보고

1.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제1차 워크숍)

-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에 관한 기획 구성 및 방향
- 일시: 원기 106년(2021) 2월 5일(금)~6(토), 1박 2일
- 장소: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 참석자: 명산 김도훈(제4대 제1회 설계위원장)/백산 동정수(원불교 정책연구소장)/윤대기 교무(청소년국장)/김명진 교도(강남교당)/최성호 교도(장충교당)/조인국 수석연구원/전상현 책임연구원/국성천 연구원/
- 주최/주관: 원불교 정책연구소

2.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제2차 워크숍)

- 목적: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회 활동 방안 모색과 기획분과 설정 논의
- 일시: 2021년 3월 1일(월)~2일(화), 1박 2일
- 장소: 익산 유스호스텔
- 참석자: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
남궁문 교도(원광대학교), 최호준 교도(경기대학교), 김명진 교도(前국가정책기획위원회), 심기현 교도(숙명여자대학교), 김상도 교도(한국리츠연구원), 양명일 교무(서전주교당), 박세훈 교무(안암교당), 장진수 교무(마음인문학연구소), 윤관명 교무 (원불교신문사), 구도선 교무(동그라미 재활원), 최명오 교무(교정원 교화훈련부), 박화영 교무(부산울산교구 사무국)
- 주최/주관: 원불교 정책연구소

3.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제3차 워크숍)

- 목적: 1)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회의 목적(비전과 미션) 공유
2) 기획위원회의 운영방침 수립
3) 교단 현황에 대한 이해 고취
- 일시: 원기 106년(2021년) 4월 2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익산 총부 법은관 화상회의실, 서울 소태산 기념관 화상회의실 (ZOOM)
- 참석자: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
- 주최/주관: 원불교 정책연구소

4.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제4차 워크숍)

- 목적: 교단의 미래 설계를 위한 미래·한국 사회 변화의 전망과 대응 방안 모색

- 주제: 미래사회와 한국 그리고 종교
- 일시: 원기 106년(2021) 5월 22일(토), 09:30~15:30
- 장소: 서울교구 한강교당 청소년멀티룸(B1)
- 참석자: 강의자 - 최병호(서울시립대 교수), 최재봉(성균관대학교 교수)/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
- 주최/주관: 원불교 정책연구소

5. 제4대 제1회 설계기획위원회 활동 (제5차 워크숍)

- 목적: 설계 의제 발굴과 기획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3대 제3회 정책실행 미비점 및 교단 설계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현안 과제와 미래 준비사항 모색
- 주제: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를 위한 교정정책(104-106) 진단평가와 제언
- 일시: 원기 106년(2021) 6월 12일(토), 09:30~16:00
- 장소: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교정원(훈산 전도연 총무부장, 수산 이건종 기획실장, 민산 박용정 재정산업부장)/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기획위원
- 주최/주관: 원불교 정책연구소

6. 교단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 조사

- 목적: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의제 수집(교단 10대 과제)을 위한 재가 교도 설문 조사
- 대상: 중앙교의회 의원(원기 105년 기준) 및 교당 교도회장
- 일시: 6/9 ~ 18 온라인 1차 설문(원기 105년 중앙교의회 의원)
7/7 ~ 16 온라인 2차 설문

<참고 자료>

본 자료는 원불교 정책연구소가 그동안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의 의제 도출을 위하여 교단内外 환경 분석을 실시했던 결과 보고입니다.

■ 차 례 ■

1. 원기104년 원불교 사회여론 조사 요약 보고(5쪽~12쪽)

(「출가교화단보」제330호, 원기104년 11월 1일자)

2. 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의식조사 요약 보고(13쪽~31쪽)

(제246회 임시수위단회 보고, 원기106년 4월 13일)

3. 원기106년 교단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재가교도 설문 결과 보고

(32쪽~37쪽)

원기 104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작성: 원불교 정책연구소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여론조사자료 분석결과
 - 2.1.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 추이
 - 2.2. 여론조사지표 상호관계
 - 2.3. 불교호감도의 상승
3. 교화정책을 위한 함의점
 - 3.1. 호감도의 중요성
 - 3.2. 매체를 활용한 교화
 - 3.3. 원불교 정체성을 교학적 정립과 홍보 및 교육
 - 3.4. 불교호감도 상승의 사회적 흐름 활용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원불교정책연구소는 지난 원기 95년 이후 올해까지 6차례 걸쳐 사회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단 대중과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교화정책에 대한 함의점 위주의 보고서를 출가교화단보에 실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체 보고서는 추후 원티스 정책 연구소개시판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논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일반사회교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셋째, 원불교에 대한 정체성을 교학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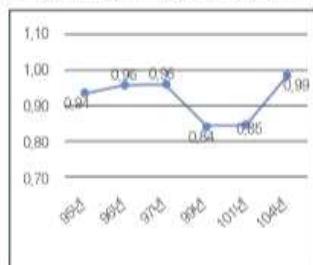
넷째,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사회적 흐름을 교화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 아래에는 각각의 결론과 관련된 분석결과와 논의를 서술하였습니다.

2. 주요 여론조사자료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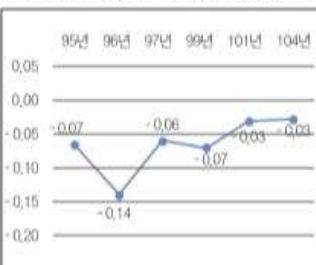
2.1.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 추이

이번 원기 104년 사회여론조사에서도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 7개 광역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였다. 그림1,2,3은 각각 95년 이후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조사항목이 모두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하나 원기 10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인지도와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¹⁾.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3년간 교단의 사회교화노력이 효과를 보아 온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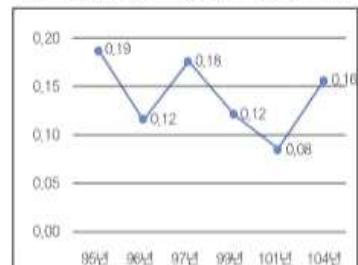
[그림1. 원불교 인지도 변화추이]



[그림2. 원불교 호감도 변화추이]



[그림3. 원불교 관심도 변화추이]



2.2. 여론조사지표 상호관계

관심도를 중심으로 인지도와 호감도, 관심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림4]와 같은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원불교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며(경로b), 호감을 가질 때 알아보고 싶어 할 것(경로c)이라는 사회여론에 대한 이론²⁾을 설정해 보았을 때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통계분석³⁾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원불교에 대한 호감과는 별도로 단순히 원불교에 대해 알게 된으로써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경로a)도 유의미하게 성립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관심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요인인 인지도와 호감도 중 호감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1) 인지도 $t(1998)=4.12$, $p<.001$, 관심도 $t(1998)=5.66$, $p<.001$, 호감도 $t(1998)=1.0$, $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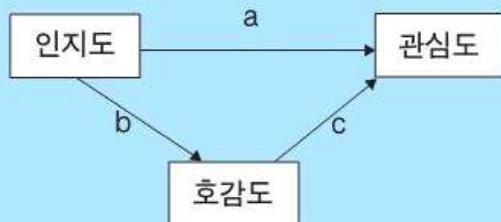
2) 이러한 이론적 틀은 다른 여론조사 연구에서도 설정된 바 있다. 성주한(2018),

경로모형을 이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특성이 인지도와 호감도 및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의 결과치가 0과 1 두 가지일 때에 따라 독립변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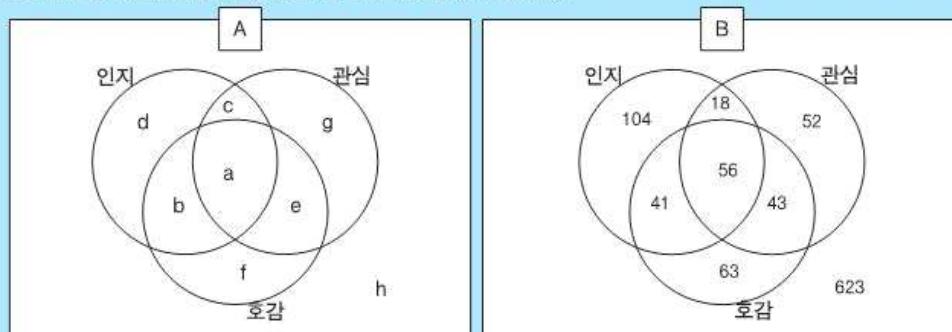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두 가지 결과치가 각각 나올 확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기법.

[그림4.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관계]



수 있었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를 0과 1 두 수치로 재코딩⁴⁾한 후 세 변수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다. 그림5-A는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그림5-B는 각각의 구분된 영역에 해당하는 설문응답자수를 기입하였다.

[그림5.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벤다이어그램 (N=1000)]



이를 통해 관심도가 인지도와 호감도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관심도는 인지도에 의해 44%⁵⁾가 설명되는 반면, 호감도가 설명해 주는 비율은 59%⁶⁾로 설명의 크기에 있어서 호감도가 관심도를 더 잘 설명해 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심도 영역 중 인지도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도 다시 76%⁷⁾가 호감도에 의해 설명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원불교의 사회교화구조를

4) 인지도0= 모른다, 1= 안다; 호감도 0= 비호감, 1= 호감, 관심도0= 무관심, 1= 관심

5) $(a+c)/(a+c+e+g) = (18+56)/(18+56+43+52) = 0.44$

6) $(a+e)/(a+e+g+c) = (56+43)/(56+43+52+18) = 0.59$

7) $a/(a+c) = 56/(56+18) = 0.76$

놓고 보았을 때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원불교 사회 교화 경로를 도표화⁸⁾해 보면 [그림6]과 같다.

[그림6. 원불교 사회 교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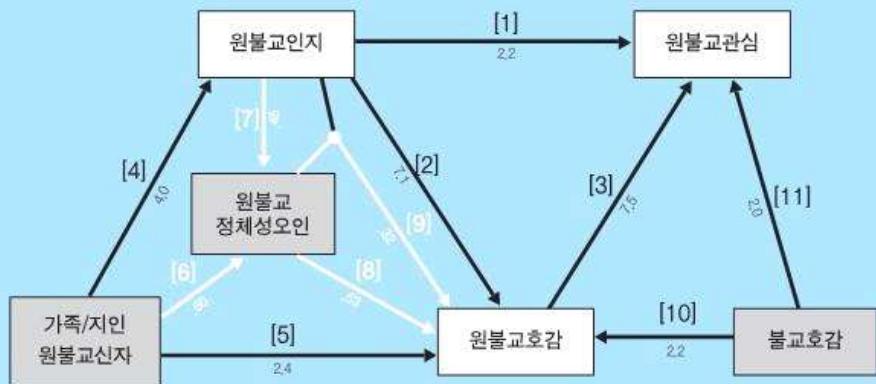


그림6의 각각의 경로⁹⁾와 통계분석 결과¹⁰⁾를 설문지 내용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상호관계

경로1: 원불교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 볼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2.2배로 높다.

경로2: 원불교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7.1배로 높다.

경로3: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 볼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7.5배로 높다.

8) 그림6은 4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통계결과를 조합하여 나타낸 경로모형임.

9) 흰 화살표를 나타낸 경로(경로6,7,8,9)는 부정(-)인 영향을 의미.

즉,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종속변수는 낮아짐.

10) 경로 아래 기재한 통계수치는 교차비 (Odds Ratio).

2) '가족/지인'의 영향

경로4: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4.0배로 높다.

경로5: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2.4배 높다.

경로6: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길 가능성이 40% 낮다.

3) '원불교정체성 오인(誤認)'의 영향

경로7: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길 가능성이 55% 낮다.

경로8: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47% 낮다.

경로 9: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되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원불교를 조금은 알되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68% 낮다.

4) '불교호감'의 영향

경로10: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2배로 높다.

경로11: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0배로 높다.

2.3. 불교호감도의 상승

소속종교와 상관없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불교를 호감 종교¹¹⁾로 꼽은 응답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원기 101년 32%에 비해 5%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불교를 호감 종교로 꼽은 응답자 중 60%가 무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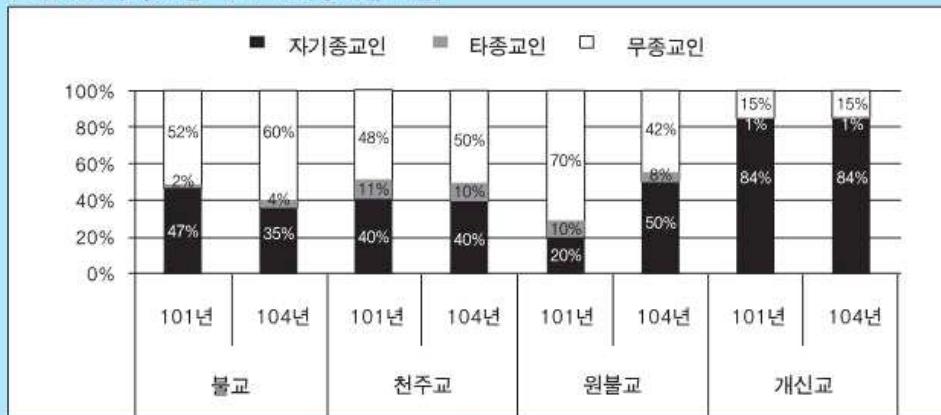
[그림 7]은 호감 종교로 꼽힌 종교별로 자기종교인, 타종교인, 무종교인의 상대적 비율을 원기 10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11) 천주교 29%, 개신교 24%, 원불교 1.2%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다른 종교와 비교에서도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52%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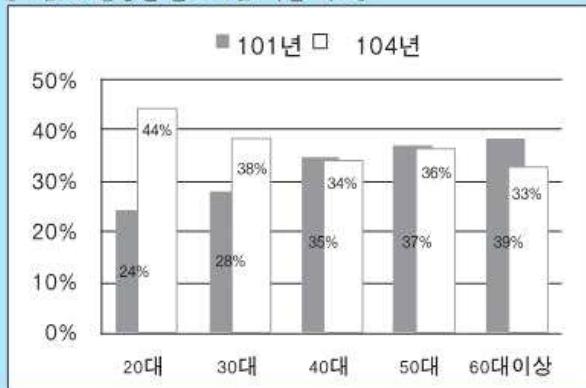
무종교인 중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기 101년 33%에서 38%로 5% 증가하였다.

[그림 7. 호감종교별 자/타 소속종교인 비율]



또 하나 불교에 대한 호감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 중에서 불교에 호감을 갖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이다. [그림 8]은 연령대별로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비율을 원기 1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연령별 불교호감 비율 비교]



20대에서는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24%에서 44%로 20% 상승하였고, 30대에서는 28%에서 38%로 10% 상승하였다. 이는 탈종교화시대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보여지며 이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3. 교화정책을 위한 함의점

3.1. 호감도의 중요성

그림 6에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경로 1,2,3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 호감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단기적으로 교화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대중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과 교화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예로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세련된 홍보와 더불어 간접교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사회복지기관¹²⁾ 등 대사회적 서비스 기관을 충실히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교화구조로 보았을 때 호감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는 향상된 반면, 호감도는 현상유지 밖에 하지 못했음 [그림 2 참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3.2. 매체를 활용한 교화

원불교의 사회교화 경로[그림 6]를 살펴 보면 가족/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외 매체 등을 활용한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음(경로 4: 인지도 4배, 경로 5: 호감도 2.4배)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를 보면 여전히 원불교에 대한 인지, 호감, 관심의 영역 밖에 있는 일반 대중(A의 h영역)이 6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원불교의 교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사람에만 의존한 전통적 교화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면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효과적인 가족/지인을 통한 교화를 유지해 나감과 아울러, 현재 효과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양질의 교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그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과 같은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 호감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3.3. 원불교 정체성의 교학적 정립과 홍보 및 교육

이번 여론조사분석 결과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다 [그림 6 경로 6,7,8,9]. 여전히 많은 대중들이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라고 여기거나(53%) 정체가 모호한 종교로 여기고 있음(18%)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오인이 사회 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정체성을 오인할

12) 지면 관계상 본 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실지 못했으나 유아교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호감도가

원기 101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3.57(원기101년) 3.10(원기104년), $t(60)=-2.39$, $P=.02$]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은 [그림 6 경로 7] 원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원불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원불교에 대해 알되 원불교 정체성을 오인하는 경우 호감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그림 6 경로 9]은 원불교에 대해 대중의 눈 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교학적 정립과 아울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홍보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원불교를 알되 원불교의 정체성을 오인하는 경우 오히려 더 호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홍보만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조사 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3.4. 불교호감도 상승의 사회적 흐름 활용

불교도가 아닌 무종교인층에서 그리고 젊은층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더불어 불교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원불교에도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그림 6 경로 10, 11]. 현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불교에 점점 호감을 갖게 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활용한다면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를 증가시켜 교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한 가지 요인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점차 널리 알려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와 교화계의 관심 있는 교무님들이 선 프로그램 교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겨진다. 명상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들이 호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교단 인재들의 역량을 모으는 작업에 교화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4. 나가는 말

본 보고서의 내용은 특별히 새로운 발견과 주장이 아닙니다. 교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의의는 논지로 세우고 있는 바가 자료와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관성 있고 평가가 가능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계수치란 확률적이어서 표본의 수집과 통계분석과정에서 확률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시행된 교정정책들을 평가해 가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교단 4대를 준비하는 교정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염원하며 보고서를 마칩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정책연구소에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기105년 출가교역자 직무·생활만족도 및 이단치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

원불교 정책연구소

CONTENTS

출가교역자 직무·생활만족도 및 이단치교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



Chapter 01 의식 조사개요

Chapter 02 비교분석 (원기94년 vs 원기105년)

Chapter 03 정책 경로분석 (원기105년)

Chapter

01

의식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출가교역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예: 성, 연령, 직급, 근무지, 수입 등), 정신건강(우울증), 신체건강, 전반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제 대처기제, 사회적 지지, 소진, 신앙 수행 생활, 조직(교단) 헌신 정도, 조직(교단) 공정성에 따른 출가교역자 직무·생활 만족도 차이 조사
- 교단의 현안 문제인 출가교화단, 수위단/교구/지구, 정기훈련 기간 관련 사항, 희망 적정 용금 액수 등에 대한 출가교역자 여론 수렴
- 출가교역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단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에 대한 출가교역자 여론 파악

2. 조사 대상

- 본 조사의 대상자는 원기 105년 현재 국내의 교구, 교당, 기관에 근무하는 출가교역자와 휴무, 휴양, 대기 중인 출가교역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출가교역자 전체임.

3. 조사 기간 및 자료 분석

- 조사기간: 원기 105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 원불교 홈페이지 [출가교역자광장 게시판과 4차에 걸친 전화문자](#) (1차 7월 1일, 2차 15일, 3차 22일, 4차 27일)로 [온라인 설문링크](#)와 함께 [7월1일부터 30일](#)을 기한으로 설문 안내를 공지하였다. [기한 이내에 587명](#), [기한 이후 8월 15일까지 추가로 17명이 응답](#)하여 [총 604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기한 이후 응답자료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설문조사 도구

-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원기 105년 설문조사 도구는 비교분석의 타당성을 위해서 정책연구소의 94년 출가교역자 의식조사에서 사용한 [의식조사 설문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17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짐.

4. 설문조사 도구 - 표1

조사 영역	주요 조사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신상정보)	성, 연령, 결혼상태, 직급, 출가년도, 근무지, 평균 월수입, 보험료
정신건강 (우울증) / 신체건강 / 주관적 건강 평가	20문항 / 만성 질병 상태 관련 13문항, 만성 질병 앓는 기간 관련 13문항 / 1문항
문제 대처기제 / 사회적 지지 / 소진	5문항 / 6문항 / 6문항
신앙수행 생활 / 정기훈련 기간 관련 의견 / 생활만족도	6문항 / 1문항 / 객관적 환경 관련 9문항, 자신·일반적 생활 관련 6문항
조직(교단) 헌신도 / 조직(교단) 공정성	5문항 / 절차 공정성 관련 4문항, 분배 공정성 관련 3문항
직무 만족도	직무 자체 관련 5문항, 상급자 관련 6문항, 동료 관련 5문항, 인사이동·전직 관련 4문항, 인사제도 관련 4문항, 용금·급여 관련 5문항
출가교화단 관련 의견 / 수위단, 교구, 지구 관련 의견	9문항 / 13문항
출가교역자 희망 적정 용금 액수	1문항
교역자 삶의 질 향상 위해 교단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	1문항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1) 전체교역자 (원기94~105년 추01)

연도별 성별 추이

■ 남자 ■ 여자 ■ 전체



● 전체 현지 출가교역자의 성비는 원기 101년을 기점으로 역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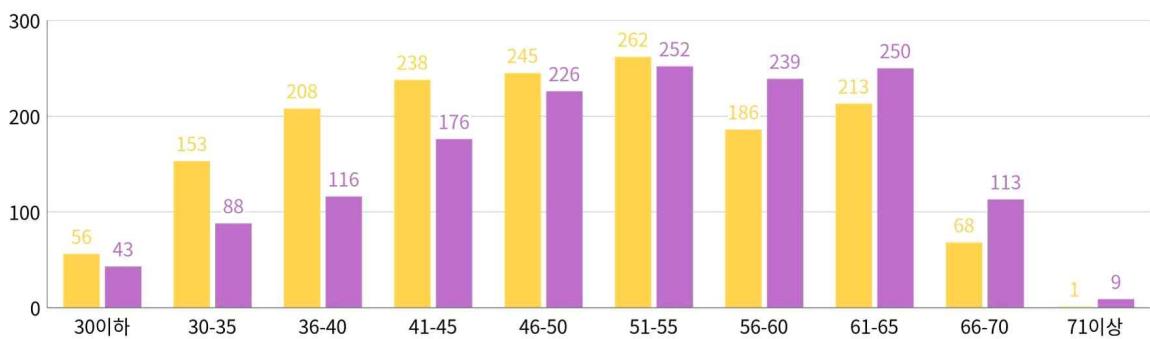
원기 101년 이전에는 여성 교역자가 남성 교역자보다 많았으나 원기102년부터 남성 교역자가 여성 교역자보다 많아짐.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1) 전체교역자 (원기94~105년 추01)

연령분포 변화

■ 원기94년 ■ 원기105년



● 연령대 분포가 55세까지는 원기 94년에 비해 줄어들고 56세 이상 근무자는 94년에 비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30-40대 출가교역자의 감소가 두드러짐.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 원기 105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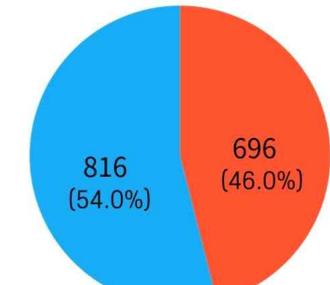
- 원기 105년 성별, 직급별, 연령별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전체 현직 출가교역자의 분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성별



■ 여성 ■ 남성

설문응답자 (6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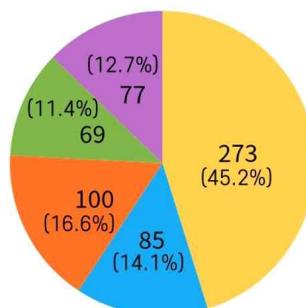
■ 여성 ■ 남성

전체 현직 출가교역자 (1,512명)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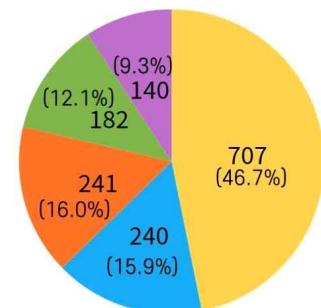
2) 원기 105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설문응답자 (6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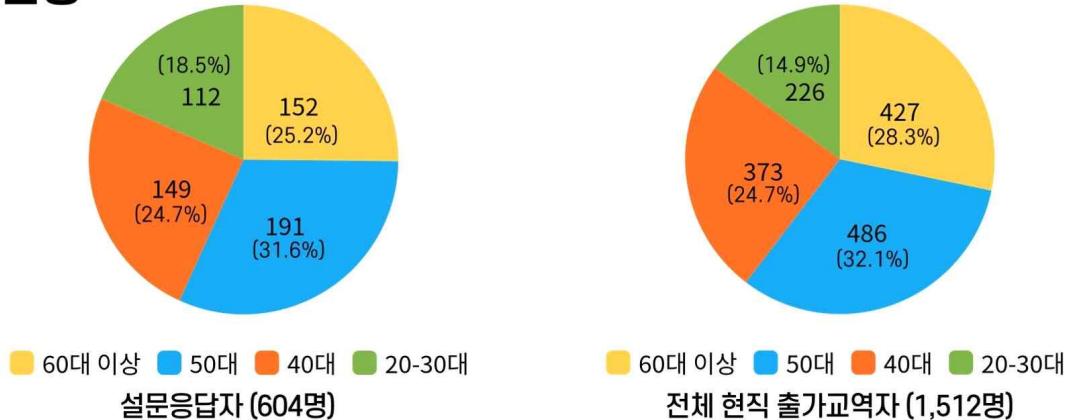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전체 현직 출가교역자 (1,510명)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 원기 105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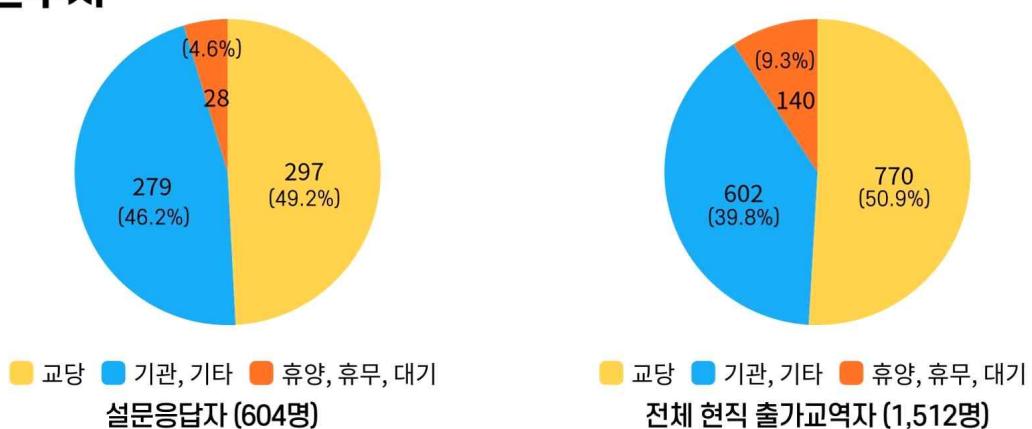
연령



5. 인구사회적 특성 비교

2) 원기 105년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지



Chapter 02

비교분석 (원기94년vs원기105년)

1. 교역자 건강

1) 정신건강(우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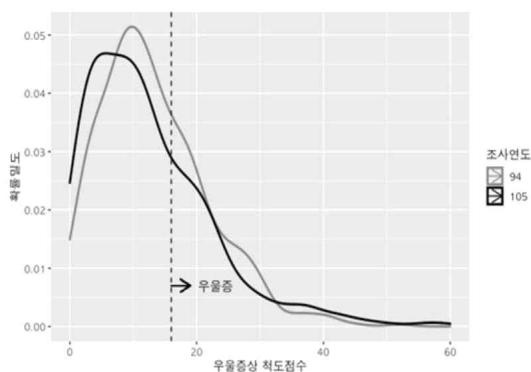
- 출가교역자의 정신건강(우울증)에 대한 원기 94년과 원기 105년의 평균지수 비교는 아래와 같다.
- 원기 94년에 비해 원기 105년에 우울증의 평균지수가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1.55$, $p=0.121$)



1. 교역자 건강

1) 정신건강 (우울증)

- 원기 94년에 비해 원기 105년에 우울증의 평균지수가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1.55$, $p=0.121$)
- 앞의 그림은 우울증상 척도점수 분포를 조사연도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우울증상 척도 CES-D에서 경증 우울증의 기준으로 삼는 16점을 기준으로 원기 94년과 105년의 우울증상 경험자 비율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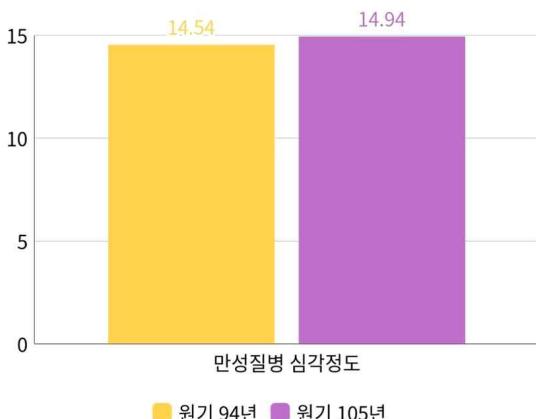
	원기 94년	원기 105년
16-20점	100 (16.7%)	78 (12.9%)
21-24점	41 (6.9%)	49 (8.1%)
25점 이상	67 (11.2%)	60 (9.9%)
우울증상 경험자 합계	208 (34.8%)	187 (31.0%)

1. 교역자 건강

2) 만성 질병 상태

- 원기 94년에 비해 원기 105년에 만성질병상태 평균지수가 다소 높아짐 ($p=0.019$)

만성질병 상태



만성 질병	원기 94년	원기 105년
전혀 없음	138 (23.0%)	122 (20.2%)
적어도 하나 있음	463 (77.0%)	482 (79.8%)

1. 교역자 건강

2) 만성 질병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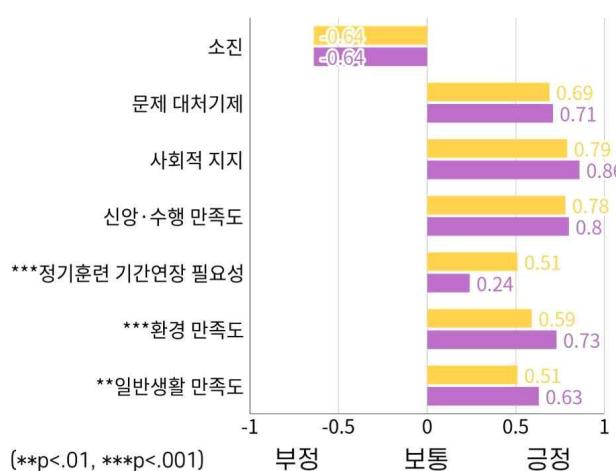
- 원기 94년에 비해 원기 105년에 만성질병 앓은기간 평균지수가 다소 높아짐. (p=.017)
- 주관적 건강평가는 원기 94년과 원기 105년 비슷함.



2. 교역자 생활

출가교역자 생활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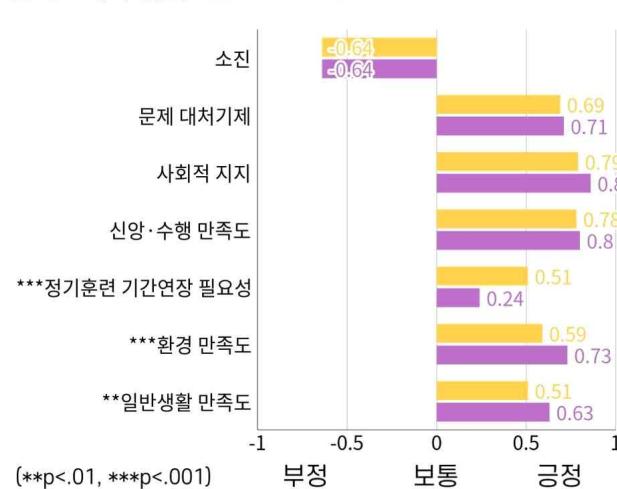


1. 객관적 환경 만족

- 객관적 환경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 원기 94년에 비해 원기 105년에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남성의 비율이 높아져 환경만족도가 높아진 면도 있으나, 연령과 성별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환경 만족도가 11년 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비슷한 연령대와 같은 성별 내에서도 객관적 환경 만족도는 11년 전에 비해 상승하였음.
- 과거(원기 94년)에 비해 교역자의 객관적인 환경이 나아진 영향일 것으로 추정됨.

2. 교역자 생활

출가교역자 생활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2. 생활 만족

- 생활만족도도 연령이 높을 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 연령과 성별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결과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생활만족의 상승은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추정됨.

3. 교역자 직무

출가교역자 직무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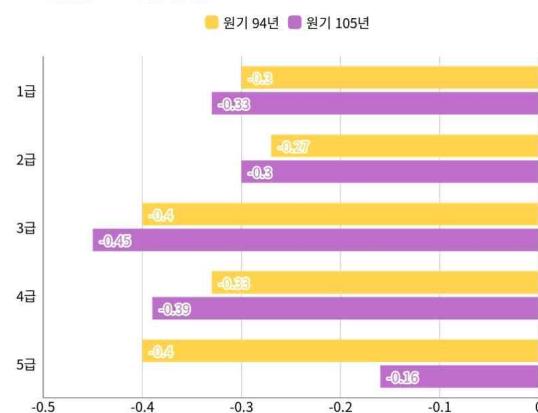
1. 조직몰입 (교단 헌신도)

- 과거의 동년배에 비해 조직몰입이 떨어진 경향이 있으나 평균연령이 높아짐으로써 교단 전체적인 조직몰입 수준은 비슷함
- 연령이 높을 수록 조직몰입이 높음
- 교당근무자가 기관근무자에 비해 조직몰입이 다소 낮음
- 연령이 비슷하고 근무지가 동일한 집단에서 조직몰입이 과거(원기94)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조직공정성을 통제했을 때 교당근무자와 기관근무자의 조직몰입 차이가 없음

3. 교역자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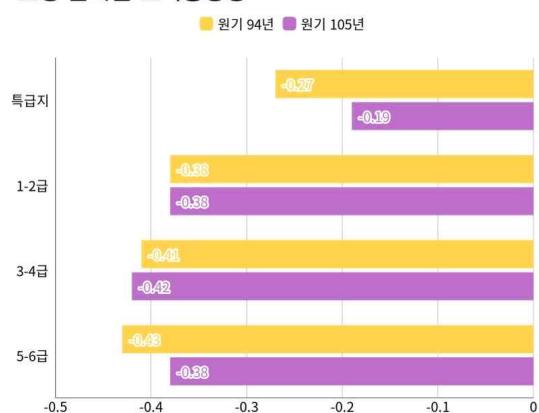
2. 조직공정성 (교단공정성)

직급별 조직공정성



● 5급 교무의 조직공정성은 과거(원기94)에 비해 올라감

교당 급지별 조직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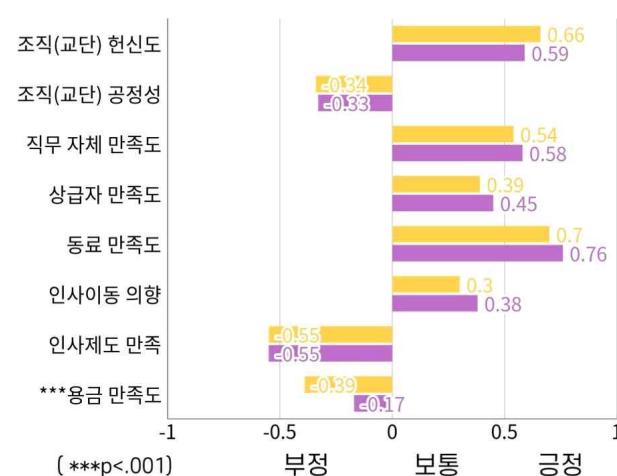


● 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희망수입이 낮을수록 조직공정성이 높음

3. 교역자 직무

출가교역자 직무

원기 94년 원기 1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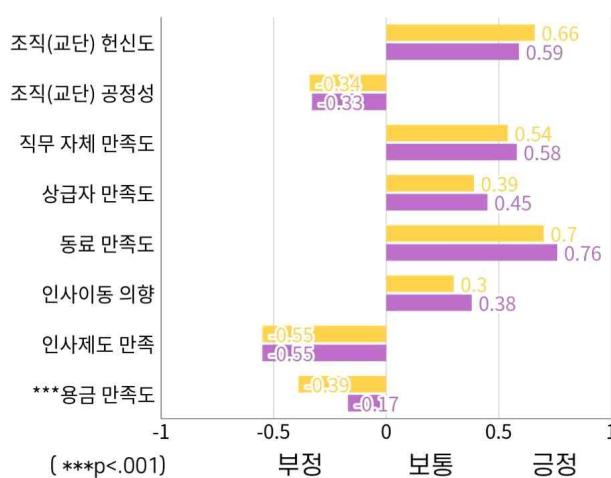


3. 인사제도 만족도

- 인사제도 만족도는 다른 지표에 비해 가장 부정적 수준임
- 전반적으로 과거(원기94)와 비슷함
- 용금수준이 높을수록 인사제도 만족도가 높음
- 희망용금수준이 높을수록 인사제도 만족도가 낮음
- 인사제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공정성이 높음

3. 교역자 직무

출가교역자 직무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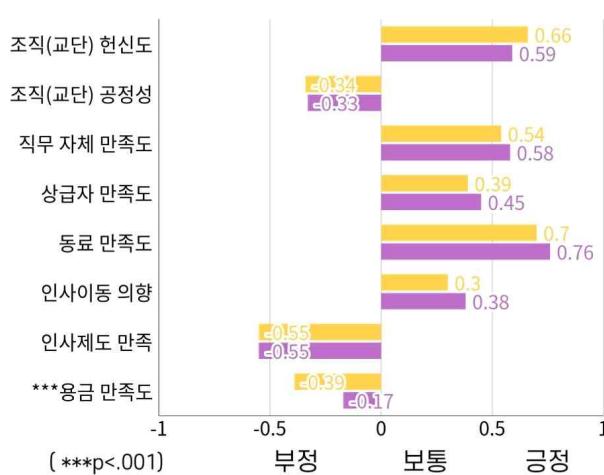


4. 용금 만족도

- 용금만족도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수준임
- 그러나 과거(원기94)에 비해서는 향상됨
 - 용금수준이 높을수록 용금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 희망용금이 높을수록 용금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
 - 용금 상승폭(35)이 희망용금 상승폭(32)보다 높음에 따라 용금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됨.
- 조직공정성 ← 용금만족도 ← 용금수준

3. 교역자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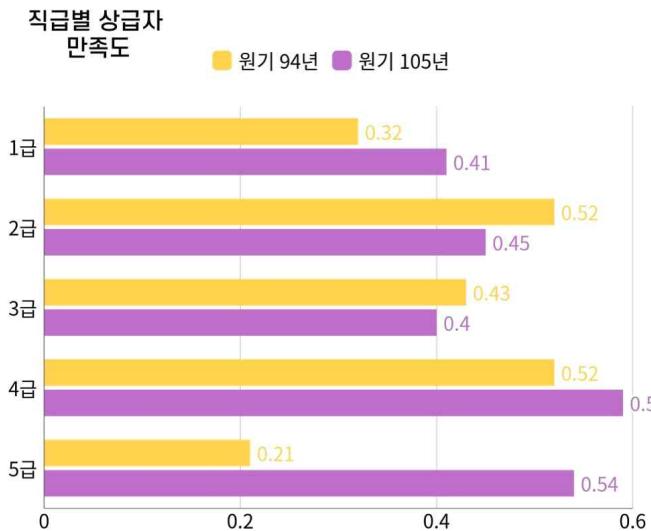
출가교역자 직무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5. 직무 자체 만족도

- 비혼 교역자에 비해 결혼한 교역자의 직무자체 만족도가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

3. 교역자 직무



6. 상급자 만족도

- 전반적으로 과거(원기94)와 비슷함
- 5급 교무들의 상급자 만족도가 향상됨

7. 동료 만족도

- 전반적으로 과거(원기94)와 비슷함
- 직급이 높을수록 동료만족도 높음
- 결혼자가 비혼자에 비해 동료만족도 높음

3. 교역자 직무

8. 교역자 용금

용금



월평균수입



희망용금



4. 이단치교

1. 출가교화단 관련 사항

출가교화단에 대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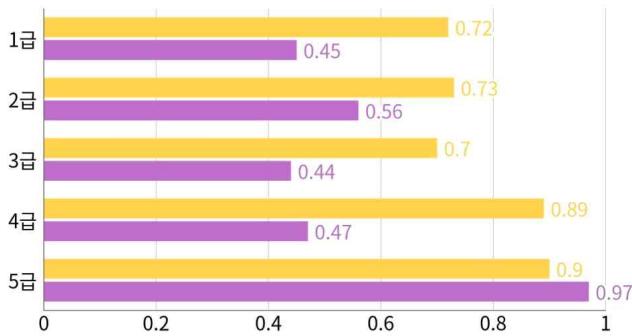
- *** 1. 출가교화단 활성화가 대종사님 이하 선진님들의 유업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2. 출가단회를 통해 재가교화단 운영 능력을 기르고 있다
- 3. 단회에서의 문답, 감정 공부에 만족한다
- 4. 활발한 의견교환으로 교단적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 5. 단회를 통한 의견제안이 잘 이뤄지고 있다
- 6. 전체적으로 현재 출가교화단 기능에 만족한다
- 7. 단회를 위해 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 8. 단장, 중앙 및 단원의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 *9. 출가교화단과 교구/지구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4. 이단치교

1. 출가교화단 관련 사항

1. 출가교화단 활성화가 대종사 이하 선진님들의 유업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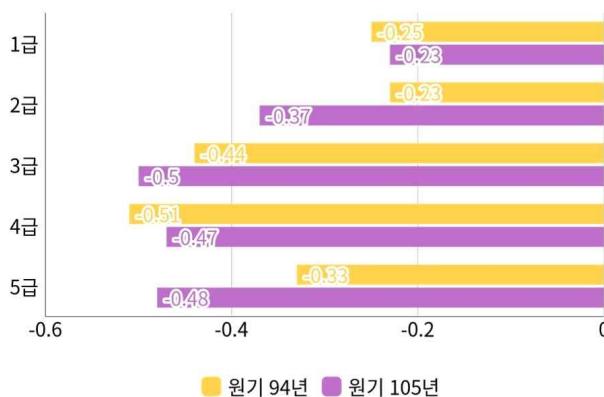
1) 출가교화단에 대한 신념

- 출가교화단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전반적으로 높음
- 기존 교무들의 신념은 낮아진 반면, 부교무들의 신념은 여전히 높음

4. 이단치교

1. 출가교화단 관련 사항

6. 전체적으로 현재 출가교화단 기능에 만족한다



2) 출가교화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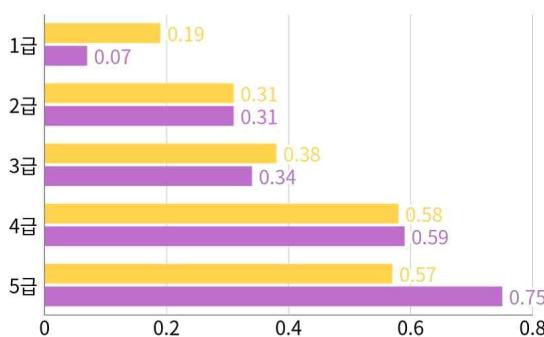
- 출가교화단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 다만, 의견제출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향상되었다
- 출가교화단에 만족할수록 신앙/수행 만족도가 높음
- 직급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더 낮다
- 휴양/휴무/대기 교역자의 만족도가 과거(원기94)에 비해 낮아졌으며, 현재(원기105)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다

4. 이단치교

1. 출가교화단 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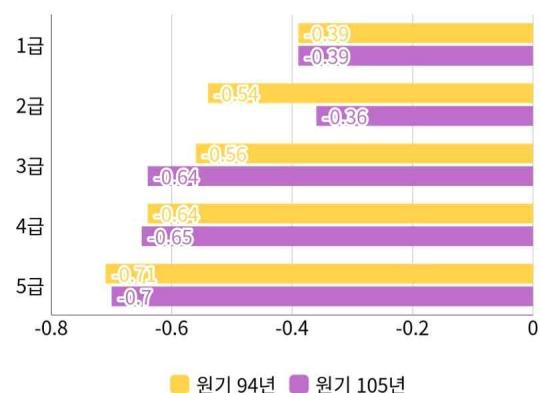
3) 훈련 강화 필요성

8. 단장, 중앙 및 단원의 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재가교화단과의 연계

2. 출가단회를 통해 재가교화단 우연 능력을 기르고 있다.



- 출가교화단과 재가교화단의 연계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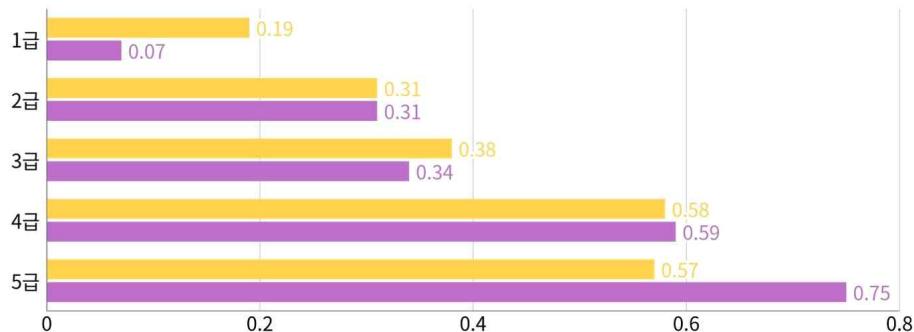
4. 이단치교

1. 출가교화단 관련 사항

5) 교구/지구 조직과 일원화

9. 출가교화단과 교구/지구 조직은
효율적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 출가교화단과 교구/지구 조직의 효율적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중견급 이상 교무에게서 약화되었다

4. 이단치교

2. 수위단 관련 사항

수위단회에 대한 의식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현재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으로서 모범적인 교회단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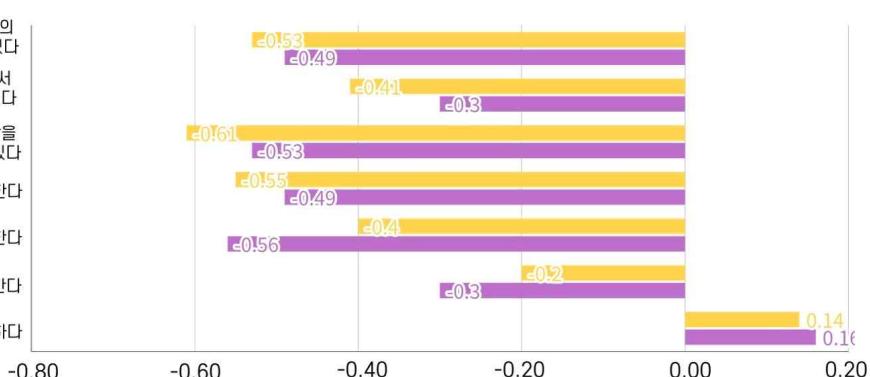
현재 수위단회는 교단적 소통을 위한 역할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수위단회의 역할에 만족한다

**현재와 같은 정수위단원 선출방식에 만족한다

호법, 봉도 수위단원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수위단원의 6년 임기는 적당하다



● 수위단회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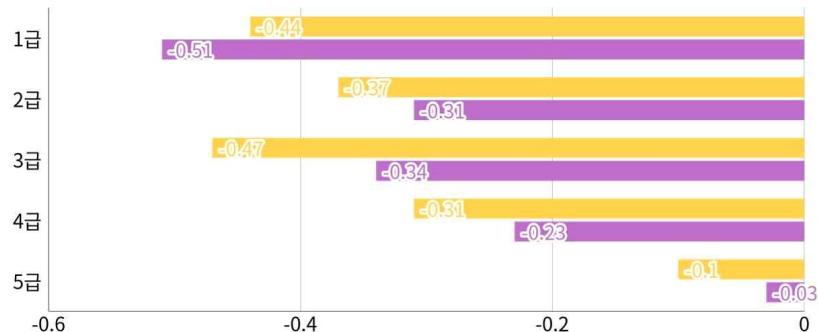
- 정수위단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했으나, 정수위단원 선출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아짐

4. 이단치교

2. 수위단 관련 사항

직급별 수위단회 만족도 (종합)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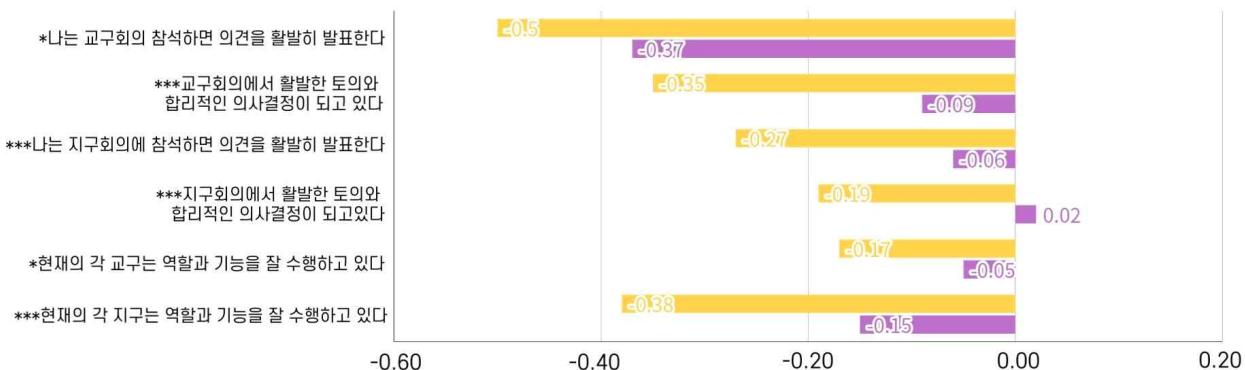
- 직급이 높을수록 수위단회 만족도가 낮음

4. 이단치교

3. 교구/지구 관련 사항

교구/지구에 대한 의식

■ 원기 94년 ■ 원기 105년



- 교구/지구 운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됨

5. 교역자의 삶의 질 향상

대분류	소분류	관련부서	빈도(개)	백분율(%)
경제 224 (32.5%)	용금/처우	재경산업부	150	21.8%
	복지	공의복지부	74	10.7%
정책 205 (29.8%)	정책일반	기획실/정책연구소	11	1.6%
	총무/인사	총무부	76	11.0%
	총무/근무/후식	총무부/교구/교당	61	8.9%
	총무/재교육	총무부	21	3.0%
	총무/양성평등	총무부	8	1.2%
	교화	교화부	28	4.1%
	교육	교육부	9	1.3%
	문화	문화사회부	2	0.3%
조직문화 165 (23.9%)	사기	총부/교구/현장 공동	68	9.9%
	소통		33	4.8%
	존중		22	3.2%
	공경		20	2.9%
	공동체		11	1.6%
	기타 조직문화		11	1.6%
공부문화 67 (9.7%)	신앙/수행/훈련	출가교화단/중앙종도훈련원	67	9.7%
기타 17 (2.5%)	(리더십, 책임감 등)		17	2.5%
합계			689	100%

1) 응답자 통계

- 응답자 수 : 464명
- 3개이상 기재 58명, 2개 기재 97명, 1개만 기재 309명

2) 응답내용 분류 (총 의견수 = 689개)

- 경제와 관련한 응답 (32.5%)이 가장 많았으나, 정책 (29.8%), 조직문화 (23.9%), 공부문화 (9.7%)에 관한 응답비율도 상당히 높았음 (63.4%).
- 경제적 재원 이외에 교단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출가교역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음을 볼 수 있음.

03 정책 경로 분석 (원기105년)

2. 정책영향 계수 비교

정책수단	정책목적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공정성
출가교화단 만족	0.03	0.12	0.01
수위단회 만족	0.18	0.05	0.30
인사제도 만족	0.17	0.22	0.40
용금 만족	0.04	0.02	0.13

- 출가교화단 만족이 1단위 상승하면 직무만족은 0.12단위 상승
- 정책경로 모형을 통해 볼 때, 출가교화단 만족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사회적 지지, 신앙수행 만족, 소진,
상급자 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수위단 만족이 1단위 상승하면 조직몰입은 0.18단위 상승,
조직공정성은 0.3단위 상승
- 인사제도 만족이 1단위 상승하면 조직몰입은 0.17위 상승,
직무만족은 0.22단위 상승, 조직공정성은 0.4단위 상승.
- 용금만족이 1단위 상승하면 조직공정성은 0.13단위 상승
- 출가교역자의 조직몰입(교단현신도)을 높이는 데 용금과 같은
물질적인 만족보다 교단운영(수위단회,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과
같은 비물질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정책 제언

- 출가교역자의 **정신건강(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출가교역자의 신앙/수행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가교화단 운영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출가교역자의 조직몰입(교단현신도)을 높이기 위해 **수위단 운영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출가교역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출가교화단 운영과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출가교역자의 교단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단회 운영, 인사제도, 용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의제수집 설문 결과 보고

중앙교의회 의원 및 교도회장 대상

1. 설문의 개요

중앙교의회 의원(원기 105년 기준) 및 교당 교도회장을 대상으로 교단 발전을 위해 제기되어 온 과제들을 정리한 82개 항목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제시하고, 이 중 교단 발전을 위해 개선 또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10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질문함.

□ 설문기간

6/9 - 18 온라인 1차 설문 (원기 105년 중앙교의회 의원)

7/7 - 16 온라인 2차 설문 (원기 105년 중앙교의회 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교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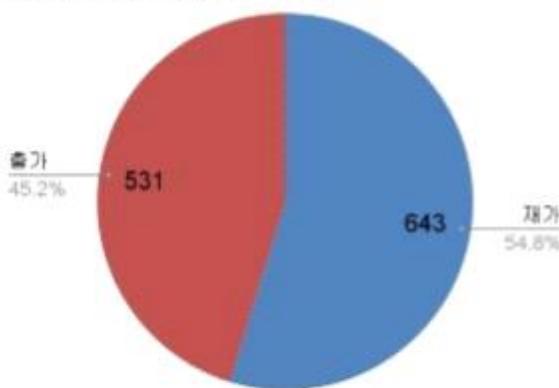
□ 응답율

전체 표본 1,174명 중 268명이 응답 (응답율 =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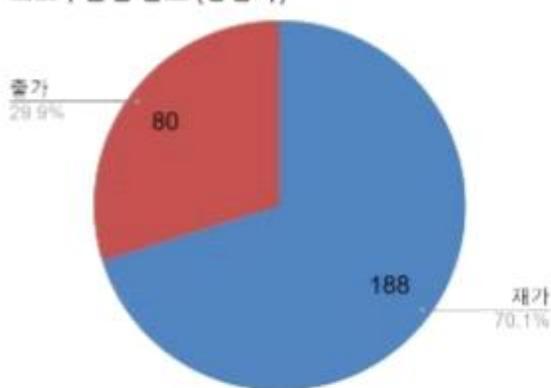
2. 표본 및 설문응답자 분포

1) 교도구분별 분포

교도구분별 분포 (표본 전체)



교도구분별 분포 (응답자)



재가교도 응답율이 출가교도 응답율보다 높다. (카이제곱검정 $p<.001$)

2) 성별 분포



남성의 응답율이 여성의 응답율보다 높다. (카이제곱검정 $p<.01$)

3) 연령대별 분포



60대의 응답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카이제곱검정 $p <.001$)

3.의제선정 결과

1) 교단 10대 과제 (재가)

순위	교단 10대 과제 (재가)
1	[총무법제] 전무출신 종합관리(발굴/교육/관리/정양) 대책 마련
2	[교화훈련] 교화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리 악세 교당 통폐합
3	[총무법제]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4	[교화훈련]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5	[교화훈련] 법회 방식의 개선
6	[교화훈련] 4차 산업혁명시대 교화/교육/자선 융합 교화모델 개발
7	[공익복지]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8	[교화훈련] 생애주기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9	[총무법제] 교화중심 법제 정비
10	[교화훈련] 전무출신훈련 강화
10	[공익복지] 전무출신 노후 복지 개선

2) 교단 10대 과제 (출가)

순위	교단 10대 과제 (출가)
1	[총무법제] 전무출신 종합관리(발굴/교육/관리/정양) 대책 마련
2	[총무법제] 출가교역자 인사 제도 개선
3	[총무법제]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교화훈련] 교화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리 악세 교당 통폐합
5	[교화훈련] 법회 방식의 개선
6	[교화훈련] 젊은 교무 교화기회 부여
7	[교화훈련] 법위사정 제도 개선
8	[총무법제]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9	[총무법제] 수위단화 관련 규정 개정
10	[공익복지]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10	[교육]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10	[교화훈련] 교화 인사시스템 혁신

출가/재가 공통

3) 전체 설문 항목 및 선택빈도

82개 교단과제 항목과 단순 선택빈도 순위는 아래와 같음.

순위	과제명	합계 빈도	%
1	[총무법제] 전무출신 종합관리(말굴/교육/관리/경암) 대책 마련	134	51.0%
2	[교화훈련] 교화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리 약세 교당 통폐합	102	38.8%
3	[총무법제]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95	36.1%
4	[교화훈련] 법회 방식의 개선	86	32.7%
5	[총무법제] 출가교역자 인사 제도 개선	69	26.2%
6	[교화훈련]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67	25.5%
7	[공익복지]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63	24.0%
8	[교화훈련] 법위사정 제도 개선	62	23.6%
8	[교화훈련] 4차 산업혁명시대 교화/교육/자선 융합 교화모델 개발	62	23.6%
10	[교화훈련] 젊은 교무 교화기회 부여	59	22.4%
11	[총무법제] 교화중심 법제 정비	57	21.7%
12	[교화훈련] 전무출신 훈련 강화	53	20.2%
13	[총무법제] 교단 인력수급 안정화	50	19.0%
13	[교화훈련] 생애주기별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	50	19.0%
13	[공익복지] 전무출신 노후 복지 개선	50	19.0%
16	[총무법제] 교단 의사결정 구조 개선	49	18.6%
16	[교화훈련] 미래형 미디어 교화 확대	49	18.6%
18	[총무법제] 전무출신 제도 개선	48	18.3%
19	[교화훈련] 교화단 교화 활성화	45	17.1%
20	[교화훈련] 정기훈련법 과목별 전문프로그램 개발	44	16.7%
20	[교화훈련] 새가교도 교육 및 훈련 강화	44	16.7%
22	[공익복지] 생명·환경·평화·통일 운동의 전개	43	16.3%
23	[교화훈련] 교리훈련(단계별) 프로그램 확충	43	16.3%
24	[재정산업] 산업기관 경영 전문화	42	16.0%
24	[재정산업] 교단의 유류부동산 효율적 관리	42	16.0%
26	[교화훈련] 새가/출가 청소년 교화자 역량 강화	40	15.2%
27	[총무법제] 교구 자치제 정착	39	14.8%
28	[교화훈련] 청소년 교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37	14.1%
29	[총무법제] 교금제도 개선	36	13.7%
29	[교화훈련] 거주지 교당 출석 교도 정비	36	13.7%
29	[교육]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36	13.7%
32	[교화훈련] 새가교도 역할 확대	35	13.3%
32	[교육] 원광대학교 및 원광학원법인 전무출신 인력감소 문제 개선	35	13.3%
32	[문화사회] 사회교화로 사회적 신뢰 확보	35	13.3%
35	[총무법제] 여성 출가교역자 정복 제도 개선	32	12.2%
36	[교화훈련] 교단 건축 표준화	31	11.8%
36	[교화훈련] 교화 인사시스템 혁신	31	11.8%
38	[총무법제] 총부 행정기능 전문화	30	11.4%

39	[교화훈련]	동일시대 교화 준비	29	11.0%
39	[국제]	국제교화 현지화 지원	29	11.0%
41	[총무법제]	수위단회 관련 규정 개정	28	10.6%
41	[문화사회]	대외업무 전문성 확보 - 대외협력실 신설	28	10.6%
43	[교화훈련]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확충	27	10.3%
44	[총무법제]	재가교역자 제도 개선	25	9.5%
45	[교화훈련]	각종 교단 의식 정비	24	9.1%
45	[교화훈련]	재가교역자 역할 강화	24	9.1%
45	[문화사회]	교화현장 문화교화 기반 확충	24	9.1%
45	[문화사회]	언론, 미디어 통합 운영	24	9.1%
45	[재정산업]	교단 각종 사업회 정비	24	9.1%
45	[재정산업]	교단 경제구조 개선	24	9.1%
51	[문화사회]	문화예술방면 전문기관(원불교 중앙문화원) 신설	23	8.7%
52	[교화훈련]	교단 연구기능 강화	21	8.0%
52	[문화사회]	성지별 특화 및 성지기능 강화	21	8.0%
52	[재정산업]	법인의 준법운영 행정 시스템 구축	21	8.0%
55	[총무법제]	모범적 공동체 모형 구현	20	7.6%
56	[공익복지]	4대 봉공 사업의 방향 설정	18	6.8%
57	[교화훈련]	기관연계 교화프로그램 개발	17	6.5%
57	[교화훈련]	교당/교구별 영모전(원) 건립	17	6.5%
57	[교화훈련]	청소년 교화자 인사제도 개편	17	6.5%
57	[교화훈련]	재가단체 역량 강화	17	6.5%
61	[문화사회]	교단 기록관리 체제 정비	16	6.1%
61	[문화사회]	원불교 문화재관리 체계화	16	6.1%
63	[교화훈련]	생애주기별 의식 프로그램 개발	15	5.7%
63	[교화훈련]	광역교화 시스템 구축	15	5.7%
63	[교육]	육영교육기관 정비	15	5.7%
66	[교화훈련]	교화협의회 기능 강화	14	5.3%
67	[총무법제]	총부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13	4.9%
67	[교화훈련]	교단/교구 교화자원센터 설립	13	4.9%
69	[국제]	국제종교연합활동 강화	12	4.6%
70	[공익복지]	복지사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11	4.2%
70	[국제]	외국어 교화교재 발간	11	4.2%
72	[총무법제]	규정 및 규칙 정비	10	3.8%
73	[공익복지]	세계봉공재단 기반 확립	9	3.4%
73	[국제]	해외 법인 관리	9	3.4%
73	[국제]	외국어 홈페이지 활성화	9	3.4%
76	[공익복지]	원불교 사회복지 이론 정립	8	3.0%
77	[공익복지]	중앙봉공회 조직 강화	7	2.7%
78	[교육]	신성회 훈련 단계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4	1.5%
78	[교육]	교육교금제도 도입	4	1.5%
80	[교화훈련]	특수계층 교화프로그램 개발	3	1.1%
80	[문화사회]	문화관련 재단의 효율적 통합운용	3	1.1%
82	[공익복지]	봉공부원장제도 신설	1	0.4%

4. 주관식 응답 분석

객관식 선택 항목 이외에 제안하고 싶은 의제 기재 요청 주관식 질문에 대하여 80명이 99개 항목을 기재하였다. 이 중 68개는 이미 제시한 객관식 항목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31개는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항목

원불교 한글화	4
교헌개정	3
교단 비전 제시	2
상사제도 개선	2
교도관리 개선	2
원불교 홍보활동 강화	2
교정원 서울 이전	1
분권화 및 연대와 소통 정신 고양	1
총부의 춘련 및 교육 기능 강화	1
거점 교당 육성	1
교도중심 교화	1
교리공부 강화	1
교법에 바탕한 세계시민 교육	1
기독신앙적 현장교화 개선방안	1
농촌교화방안	1
사랑중시 교화	1
역동적 교화활동 추진	1
질적교화와 양적교화 병행	1
원불교학 정립	1
교역자 사기 고양	1
생명·환경·평화·통일 운동의 전개 반대	1
원음방송 프로그램 개편	1

기존 제시 항목 관련 빈도 높은 항목

출가교역자 역량 강화	7 (재03 출08)
출가교역자 인사 제도 개선	5 (출02)
교화 인사시스템 혁신	4 (출10)
설교기법 및 내용 개발	3 (재04)
예비교역자 교육 내실화	3 (출10)
현직 전무출신 후생제도 개선	3 (재07 출10)
재가교도 역할 확대	4 (총32)

미래형 미디어 교화 확대	4 (총16)
청소년 교화프로그램 확충	4 (총43)